“인재 양성할 교육·포교 혁신 불사 이루겠다”

범어사, 8월 29일 신임 주지 보운 스님 진산식

교육 혁신·포교 저변 확대·문화 융성
보운 스님, 범어사 3대 핵심과제 발표
지유 스님, “총림은 바른 인재 양성소”
범어문도 대책위 총회… 갈등 이어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금정총림 범어사는 8월 29일 신임 주지 보운 스님 진산식을 봉행했다.

금정총림 범어사 신임 주지 보운 스님의 공식 취임을 알리는 진산식이 열렸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8월 29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신임 주지 보운 스님 진산식을 봉행했다. 이날 진산식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삼혜 스님, 교육원장 직무대행 서봉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덕문 스님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해 주지 취임을 축하했다.

신임 주지 보운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교육 혁신, 포교 저변 확대, 문화융성’을 범어사 3대 핵심과제로 발표하며 전법을 화두삼아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보운 스님은 “최고의 불사는 인재 양성에 있음을 자각하고 미래의 불교를 위한 불사를 이루고자 한다”며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내에 포교 신행단체들을 위한 공간을 신설해, 이들 단체들이 운영에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오직 포교에 진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범어사는 승가교육기관을 모두 갖춘 총림이자, 불교대학과 시민선방 등을 통해 재가불자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당 교육기관들의 운영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참배객들이 불교문화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부산 시민의 편안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향후 청사진도 소개했다.

방장 지유 스님은 법어를 통해 범어사가 올바른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불자들이 수호신장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유 스님은 “중생이 괴로움을 덜도록 돕고 지혜를 양성하는 곳이 사찰이다. 특히 총림은 나무가 우거져 함께 성장하는 숲을 의미한다. 여러 나무가 자라는 곳, 인재양성을 위한 곳이며 올바른 사람을 키우는 곳이 총림”이라며 “진리를 전파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곳에 다른 욕심을 가지거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삿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불자 여러분들이 수호신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총무부장 삼혜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오늘의 뜻깊은 진산은 대외에 총림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금강의 주춧돌이 되겠다는 서원의 자리이자 불교의 가치를 국가와 지역에 뚜렷이 각인시키겠다는 다짐의 자리”라며 “오늘 금정산에 함께하신 사부대중은 신임 주지스님의 서원을 증명하면서 동시에 굳은 언약을 점검하는 신장이다. 신심과 원력을 지닌 사부대중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신다면 부산 불교의 미래는 더욱 빛나고 선명해질 것이다”고 전했다.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은 “새로 취임한 보운 스님은 범어사에서 주요 소임을 역임했으며, 종단이 어려운 시기 수년간 총무원 호법국장과 감사국장 소임을 맡아 누구보다도 청정승단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조계종단의 수행 가풍을 확립하고 정화운동에 앞장서신 동산 큰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금정총림의 교구장으로서 정법안장에 원력을 다하고 교구 화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진산식을 통해 신임 주지 보운 스님의 취임을 공식적으로 알렸지만, 범어사의 내부 갈등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 금정총림 정상화를 위한 범어문도 대책위원회(이하 문도 대책위)가 8월 30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금정총림 정상화를 위한 범어문도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도총회에는 동산 대종사의 1대 상좌 원두·흥교·선래·대성 스님과 정여·수불·선재·종훈·범산·법안·범일·정오·무관·도관·강하·상화·성공 스님 등 문도 스님 251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도총회에서는 前 주지 경선 스님의 참회와 신임 주지 보운 스님의 사퇴를 촉구하는 문도 대책위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문도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화합승가를 유린하고 총림을 독단으로 운영한 경선 스님은 대중 앞에 참회하라 △동산 대종사의 정신을 훼손한 스님들은 금정총림을 당장 떠나라 △범어문도 동의 없는 보운 주지는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은하사 회주 대성 스님이 의장을 맡은 문도 총회에서는 △문중 공의 무시한 금정총림 주지 불신임의 건 △문중화합을 깨트린 자들에 대한 갈마(羯磨)의 건(갈마단 구성) △금정총림 발전과 문도화합을 위한 대책의 건 등을 다뤘다. 이를 통해 문도 대책위는 흥교·원두·대성·선래·홍선·종훈·화랑·선재 스님으로 임시 갈마단을 구성했다. 또한 대책위 소속 범위를 금정총림 재적스님으로 확대할 것을 결의했다.

대변인 도명 스님은 “前 주지 경선 스님의 갑작스런 사임과 주지 임명에 있어 여러 의혹이 있고 대중은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자리로 갈마 법석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오늘 8명의 갈마 대표를 구성했고, 갈마단 대표스님들은 위임받아 30명 안팎의 갈마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장추대위원회 구성 등은 오늘 결의되지 않았다”면서 “평생 수좌로 살아오신 방장스님은 대중의 존경을 받는 스님이시다. 방장 선거 및 절차는 순리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은 “방장 스님과 어른스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보운 스님은 “방장 스님이 주지를 추천하고 품신 받은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면 문도 대책위와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주지 품신 과정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문도 대책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방장 스님은 주지 진산식 법어를 통해 ‘권력을 탐하는 삿된 무리는 없어야 한다’고 명백하게 뜻을 밝히셨다”면서 “주지 임명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방장 스님의 뜻을 먼저 들어야 할 것이며 나는 방장 스님과 어른 스님들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불교, 한가위 맞아 자비나눔

부산 해동용궁사·혜원정사 등
위기가정·학생 등에 쌀·성금



해동용궁사는 8월 31일 기장군청에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한가위를 맞아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이 불도 부산 곳곳에서 전개됐다. 해동용궁사(주지 덕림)가 8월 31일 기장군청 군수실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위기가정을 위한 자비의 쌀 2000kg(1000만 원 상당)을 기장군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주지 덕림 스님과 정종복 기장군수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나눔은 해동용궁사에 신임 주지 덕림 스님이 지역민과 함께 상생할 것을 약속하는 첫 나눔 행보로, 이번 나눔을 시작으로 매년 2회 기장군청에 쌀을 전달할 계획이다.

덕림 스님은 “저도 기장군에 살고 있는 기장 군민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그마한 나눔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장군민 모두가 어려움 없이 풍요로움 가득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라며 기장군청에 사각지대 없는 복지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해동용궁사는 지역과 소통하고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자비나눔 실천도량이다. 항상 감사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자비의 쌀을 전하며 스님과 신도들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8월 30일 혜원정사 경내에서 ‘연제구 이웃돕기 성품 기탁식’을 개최하고 지역민의 풍성한 한가위를 위한 쌀 2000kg(200포대)을 연제구청과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연제노인복지관, 연제구지역자활세터, 부산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등 연제구 관내 복지시설 4곳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과 주석수 연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은 “여전히 코로나가 영향을 끼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풍성함과 건강을 기원하는 한가위이다.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맞고 전달식을 위해 이 자리를 찾아준 내빈들에게 감사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부산불교지도자포럼(회장 정종원)은 8월 31일 부산 서면 유원골든타워 사무실 내 법당에서 ‘추석맞이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선양복지원, 금정불교대학, 금강불교대학, 여래사불교대학, 부산 내 대학교 불교동아리(인제대, 부산대, 동아대, 부경대, 해양대) 등에 각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전달했다.

정종원 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다. 불교대학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그 어느 곳보다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미소원, 풍경소리 게시판 교체 기금 전달

8월 26일, 백중기도비 500만 원 후원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8월 26일 법당에서 ‘풍경소리 지하철 노후 게시판 교체불사’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원후원금은 500만 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회원들이 백중 49일 기도 기간 동안 십시일반 모은 기도비로 마련했다. 이날 미소원은 지하철 포교 후원을 약정하는 31명의 후원 약정서 및 후원금 155만 원을 추가로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풍경소리 대표이사 목종 스님,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동참했다.



풍경소리 대표이사 목종 스님은 “지하철 풍경소리 게시판은 처음에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래된 게시판 교체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되살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자 한다”며 “봉사단체이자 신행단체인 미소원에서 제일 먼저 마음을 내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미소원의 기부가 마중물이 되어 이 불사가 원만회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읽는 풍경소리는 마음에 위안을 전하고 다짐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풍경소리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문서포교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며 “풍경소리 게시판 교체불사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말을 듣고 이번 백중 기도비를 풍경소리에 전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불쏘시개가 되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서 많은 불자들이 함께하는 불사로 원만하게 성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음악캠프 성료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회장 황산)가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원정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제2회 음악캠프 - 쓰담쓰담 쉼 음악여행’을 진행했다.

음악과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불교를 경험하고 어린이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된 음악캠프에는 나모라어린이합창단(울산 황룡사), 동림소년소녀합창단(홍법사), 무진선재단(무진선원), 상림어린이합창단(함양 서암정사) 선혜단이슬합창단(관음사), 슬기어린이합창단(대광명사), 혜원어린이합창단(혜원정사) 등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 교사, 지휘자 등 160여 명이 참여했다. 1박 2일간 참가자들은 공연을 관람하고, 음악과 명상을 함께 체험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천진불어린이합창연합회 총재 지현 스님은 “음악캠프에 오신 여러분들이 미래에 오실 미륵부처님”이라며 “천진불의 모습대로 걷고, 먹고, 뛰어 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보혜 스님, 그림 전시회 개막

작품 40여 점, 청량사 불사금 회향



(사)향기로운문화동행 이사장 보혜 스님이 9월 1일 부산시민회관 갤러리에서 ‘茶향이 절로 절(寺)로 보혜 스님의 그림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사)세상을 향기롭게 이사장 정여 스님, 기장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 황운철 기장군의원, 정영자 한국문인협회 고문, 오수련 부산예술총연합회 회장, 이정필 부산문화회관 대표 문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보혜 스님은 “어느 유명화가의 권유로 우연히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색채를 좋아하긴 했지만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한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인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9월 8일까지 열리며 새와 도자기, 바다에 담은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의 수익금은 기장 청량사 불사금으로 회향할 예정이다. 한편, 보혜 스님은 (사)부산여성문학인협회가 주최하는 제30회 부산여성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9월 7일 오후 7시 수영문화원 5층에서 열린다. 보혜 스님은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동명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 이사장,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 이사도 맡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재동자문화전승단, 전통문화 탐방

통영 한산도 제승당서



부산불교연합회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이 8월 25일 통영 한산도 제승당에서 문화 탐방 및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선재동자문화전승단 1기 어린이 17명과 지도교사, 범어사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벽해 스님 등 참가자 20여 명은 이순신 장군 유적지인 제승당에서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활약상에 대해 배웠으며, 제승당 일대를 청소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연등회 및 팔관회 등 불교 대표문화활동에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도록 돕기 위해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3월 각 사찰

의 모집공고를 통해 선재문화 문화전승단 제1기를 선발했다. 1기로 선발된 어린이들은 행렬등 제작, 부산연등회 연등행렬 참가 등 부처님오신날의 행사들을 체험했으며 정화 봉사활동 및 전통문화를 경험한다.

앞으로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은 팔관회의 호국불교 상징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팔관회 행사에 참여해 수계를 하고 호국 문화유적지 탐방 및 주변 정화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어린이들은 이번 제승당 정화 활동에 이어 9월에 부산어린이대공원에 위치한 사명대사 호국광장, 11월에는 경주 일원의 문화유적지 탐방 및 정화활동을 진행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라오스 대학들과 인재불사 협약

라오스의 한국어과 학생 지원
한국어 진행 ‘도전 골든벨’ 개최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8월 27일 대적광전에서 ‘부처님의 나라, 희망의 나라 라오스 인재불사를 위한 첫걸음-업무협약 성과보고회’를 진행했다.

성과보고회에서 주지 심산 스님은 지난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라오스를 방문해 한국 전통 불교문화 해외 홍보 및 한국어 교육을 통한 인재불사 결과를 보고했다.

심산 스님은 “라오스 국립대학과 수파누봉대학교 등 두 대학에 있는 한국어학과와 협약식을 진행하고 왔다”며 “앞으로 인재불사 및 해외포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문화포교를 통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 말했다.

홍법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라오스의 대학 내 한국어과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을 돕고, 한국 전통 불교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전통불교문화를 알리는 일에 앞장설 계획이다. 라오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도전 골든벨을 개최하고 입상자 및 교수를 한국에 초청해 격려할 예정이다.

홍법사는 그동안 몽골, 티베트,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해 도전 골든벨과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